"살려 달라"는 중증 발달장애인에 손 잡아준 광주시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문열어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서구 장애인복지관 등 2곳에
공적 영역에서 365일 하루 24시간 1대 1 지원 가능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비로소 존엄성을 인정받아 비장애인처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24일 오전 광주 북구 동림동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에서도 보살피지 못하는 최중중 발달장애인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돌보는 융합돌봄센터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계획을 수립한지 6개월여 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공적영역으로 끌어 안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소식 현장에서는 뜻 깊은 편지 한 통이 낭독됐다. 장애인부모연대 김유선 대표는 이 편지에서 "효율이 최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각박한 세상속에서 가장 힘든 삶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지고 지원체계가 만들어진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참으로 오랫동안 '살려 달라'고, '더 이상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목놓아 호소하며 외쳐댔다"며 "동료의 뜻하지 않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가며 위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남겨둔 자식들을 시설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절망의 고리를 끊어 내려면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도움이 간절했는데 시가 외면하지 않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융합돌봄센터 지원체계를 만들어내 새로운 희망이 돋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한 인간임에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어서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과 가족만이 떠안고 살아야 할 짐도 아니다"며 "더 이상은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이 세상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다 우리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주거생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구 장애인복지관 2곳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각 130㎡, 270㎡ 규모로 그룹활동실, 개인활동실, 심리안정실로 구성돼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각각 4명씩 8명을 지원한다.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지원 인력 4명과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2명이 행동을 분석하고 행동수정을 병행하며 돌봄을 지원한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복지관 활동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간활동을 마친 후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지원인력 2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부터 식생활 등 자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받게 된다.

주말과 휴일에도 돌봄지원을 받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할 경우 주 1회 또는 월 1회 가정으로 돌아가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도전적 행동이나 폭력 성향 등으로 가족 외에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1차로 지원 대상 40명을 선정한데 이어 다음달 2차로 4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최윤희 기자

광양시,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GPS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지문등록3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실종인식팔찌·의복부착형 인식표 지급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사전 예방하고 실종 후에도 가족의 품으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부착형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고 있다.

시에서 2019년부터 보급 중인 배회감지기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활용한,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형 단말기로 가족들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회감지기와 앱을 통한 안심존 설정과 이탈 시 경고, 긴급호출 SOS 등 다양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시는 배회감지기 외에도 고유번호가 기록된 의복부착형 치매 배회 인식표와 치매안심 팔찌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경찰서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사전지문등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치매 예방·진단 상담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시 원스톱으로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실종예방 시스템의 적극 활용으로 치매 어르신 가족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광양시 치매안심센터(☎061-797-4059), 진상면 백학동 기억샘터(☎ 061-797-4814)를 통해 가능하며, 치매 어르신 가족이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

노인재능나눔활동 순회교육 실시

만60세 이상 참여자 90명에게 재능나눔으로 사회활동 기회 제공"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지회장 오호근)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노인재능나눔활동 참여 어르신 90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지회는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재능나눔활동 사업 운영 안내와 안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오호근 지회장은 "코로나 19로 예년보다 참여인원이 줄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재능나눔 활동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며

"각자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기만족과 성취감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